

● 명인 명소(名人 名所)

## 연천 경순왕릉

아! 비운의 신라왕. 경순임금님...어찌 신라의 옛날의 영광을 버리시고 임진강 고랑포(臨津江 高浪浦) 언덕에 잠들어 계시나이까?

권용만 교수(부정공파 38세)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고랑포리에 위치한 통일신라의 마지막 임금 경순왕릉 앞에서 권행원 편집국장, 권용만 편집위원, 권해옥 회장, 권오상 사무총장 직무대행(원쪽부터)



속에 새기시기를 이곳 고랑포를 내려다 보는 야트막한 언덕위에 계신 님의 흔적을 찾아서 1747년에 후손인 경주 김씨 문중이 신라경순왕지릉新羅敬順王之陵이 새겨진 묘지석墓地石을 발견 하였지요. 왕릉의 위엄 대신에 사대부의 묘 정도로 하여 놓은 것도 곡절 많으셨던 님의 비애를 말하는 것 같아서 눈시울을 적십니다 능의 주변을 두른 호석虎石과 곡장曲牆)도 다른 왕릉에 비하면 왜 이리 초라한지요. 대왕님이시여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역사인 것을 누구를 탓하며 원망하리까. 그 많은 세월을 견디어 와치시며 비운의 역사를 깊으신 마음속으로만 삽아신 님의 침묵의 소리를 이 후손은 지금에야 듣고 있읍니다. 죄송천만함과 송구함에 고개를 숙입니다.

이 땅에 625 전쟁의 화마가 지날 때에는 또 다시 비운의 역사가 흘러 능이 방치되는 수모가 지나갔지요. 그러나 1975 6 25에 신라 사람인 대통령에 의하여 대한민국 사적 제 244 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패망한 나라의 왕이 지니셨던 한과 설움을 그 누구라 감히 가늠이나 할 수 있으리요 마는 이제라도 수많은 후손들이 님을 기억하여 매년 봄과 가을에 대제 대설을 드리오니 흡향散饗하시옵소서.

**천년왕국 신라의 마지막 대왕님이시여**  
님이 가신 후 머나먼 고향 땅 경주를 그리시며 천년의 비바람을 견디우신  
님을 뵈오니 송구함과 감사와 기쁨이 복받쳐 오나이다  
하오나 이 북녘의 임진강 고랑포구를 바라보는 양지바른 곳  
좌청룡 우백호의 명당에 잠드신 님이시여  
지난 날의 굴곡의 세월들을  
내 백성 사랑하시는 그 크신 마음으로  
저 강물위에 이제 다 떠나보내시고  
이 민족의 앞날을 굽어 살피시사  
저희 후손들이 국태민안國泰民安의 어질고도 덕이 넘쳐흐르는  
예례가 있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계만방에 떨쳐 일어나  
곳곳마다 광명한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 모아 비옵나니 이 대한민국이  
단군성조의 혼魂을 받은 이 나라의 흥익인간 배달민족이  
홍왕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만세  
이 진혼시(眞魂詩)를 경순대왕님의 영전(靈前)에 올립니다.

안동권문의 시조인 권행은 원래 신라 경순왕의 외손이셨다. 신라 13대 미추왕威鄒王, 262-284년 후에後裔로 경주 김씨가 원래의 성이셨으나 경애왕景哀王의 포석정에서의 시해 사건 후에 김행 김선편 장정필 삼태사가 고려 태조께 귀부歸附 하시고 후백제 견훤군을 토벌한 공을 고려 태조 왕건 대왕께 인정받아 고려의 개국공신이 되시고 김행은 능병기 달권能炳繼達權)으로 권씨 성을 하사下賜 받으시고 옛날 고창 지금의 안동부安東府를 식읍食邑)으로 하사下賜 받으셨다. 이러한 역사이니 안동 권문의 부정공파 38세 손인 소생이 경순왕릉에 참배드림이 천만 지당한 일이 아니었나요.

대왕이시여 어찌 그리 한이 많으시어 밤낮으로 고랑포 하구만 바라보십니까. 경주에 지금이라도 가시고 싶으시지요.

고려 태조 왕건의 무를 앞에 드려 버린 진평왕眞平王)의 옥대玉帶와 신라 천년왕국의 사직社稷을 생각하시면 927년 포석정鮑石亭)의 선왕이신 경애왕의 최후가 너무도 억울하고 서러우시지요. 이제 왕족인 박씨 성이 김씨로 바뀌었어도 그것이 견훤이 준 것이기에 님은 마음에 허락이 되지를 않으셨지요. 사랑하는 마의태자와 덕주공주와 화엄사에서 범공梵空 스님이 된 막내 왕자를 떠올리시면 935년에 님께서는 나약해지신 마음으로 조정대신의 회의를 여시고 전쟁으로 내 백성을 더 이상 다치게 하여 피를 볼 수가 없도라고 하셨지요. 시랑侍郎인 김봉후(金封休)의 손에 신라국서新羅國書를 쥐어 주시고 태조 왕건대왕에게 평화적으로 나라를 넘겨 주신 님은 동서고금東西古今을 통해 가장 현명한 성군聖君이셨습니다.

태조 왕건은 당신께 고려의 태자의 지위인 정승公正承公에 봉하셨지요. 태조 왕건 대왕의 공주이신 낙랑공주樂浪公主와 재 혼인하시어 유화궁柳花宮에서 여생을 보내셨지만 그 마음이 어디 편하신 날들이었을까 하고 이 후손은 사묘가 되나이다. 고려에 귀화歸化하신지 43년 만인 고려 경종 3년 978년에 님은 한 많은 이 세상을 하직하시지요. 이에 고려 왕께서 경순敬順의 시호(諡號)를 내리셨지요. 이 릉의 이름도 여울 단(端) 자를 써서 단릉湍陵이라 하셨지요 아 비통하신 왕께서 승하(昇遐) 하신 후에라도 선대(先代)의 왕릉이 있고 님의 안태고향安胎故鄉인 신라 천년의 고도(古都 경주(慶州)로 편히 가시려나 하였지마는 그러나 님의 상여가 임진강 臨津江의 이 고랑포(高浪浦)를 건너가기 전에 개성으로부터 날라온 왕명은 고려의 왕의 관습은 개경으로부터 일 백리를 벗어날 수(王棺都城百里地外不居)가 없다는 것이었지요. 고려군사 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조차 가로막으니 수만의 신라 유민의 통곡이 그야말로 경천동지驚天動地 하셨지요. 그러나 어찌하리요. 나라를 넘겨준 임금이 무슨 힘이 있으리요. 끝내 님께서는 임진강을 굽어보는 고랑포 언덕에 조그마한 릉으로 남으셨군요. 신라의 왕릉이 경주 밖에 계신 것은 님이 처음이지요. 이 무슨 역사의 아이러니이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라를 잃어버리면 그 슬픔과 서러움을 어찌 필설筆舌로 다 하리오. 오늘날 이 땅의 백성을 중에 일제 36년 망국의 설움을 피가 끓도록 아는 이가 몇몇이뇨.

아 그 아픔과 설움의 세월들을 우리 안동 권문들이라도 빼

## 행주서원 임인년 춘향제 봉행

2022년 4월 15일 11시 고양시 덕양구 행주동에 위치한 행주서원에서 춘향제를 봉행하였다. 행주서원에는 권을 장군 등 행주대첩을 거둔 7장수가 배향되어 있다. 이날 춘향제는 초현관 고양향교 전교 강홍강, 아현관 행주서원 고문 김영호, 종현관 고양시유도회 전 회장 김충신, 대축 행주서원 유사 정대채, 집례 행주서원 유사 이현규, 집례 해설에는 예절강사 한영애, 안내 예절강사 유순녀, 권은경으로 분장하였다.

권정택 전 행주서원장



〈특별기고〉 권인호(철학박사, 대진대 교수, 한국동양철학회 회장)

## 전통계승과 온고지신 및 민본적 정치철학의 실사구시적 실학정신(22)



토정의 풍모는 신장이 보통사람보다 커 있으며 골격이 건장하였고, 얼굴이 검고 둘글며 풍만하였다. ‘페랭이(蔽陽子)와 쇠 것을 쓰고, 짚신에 죽장을 짚고 다녔다’는 기록이 있다. 보령에서 서울까지 1~2일밖에 걸리지 않았으니 당시 민중들은 ‘토정이 죽지법을 한다’고 알았다 한다. 그는 밥을 한끼번에 말밥을 먹고 길양식을 많이 가지고 다니지 않아 여려 가지 점에서 이인(異人)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토정은 고관대작이 있거나 말거나 언행동작이 전혀 거리낌이 없었던 점과 해학기지·쾌락스로 세상 사람들을 놀래고 우습게 하였다고 한다.

여기에서 당시 밀접한 교류가 있었던 남명(南冥) 조식(唐植, 1501~1572)과 토정은 기질이 비슷했다. 직선적이고 타협을 몰랐던 남명의 기질에 대해서는 ‘벽립만인(壁立萬仞)’이나, ‘주상지기(秋霜志氣)’ 등의 용어로 대변되었는데, 토정의 조카인 영의정 아계(鶴溪) 이산해(李山海, 1539~1609)가 토정의 제문을 쓰면서 ‘천인벽립(千仞壁立)’이라 한 것에서 두 사람이 기질 면에서 서로 비슷했음을 단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남명과 토정은 과거를 기피하고, 저술을 즐기지 않아 그들이 남긴 문자기록은 얼마 되지 않지만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학문방향과 개혁적인 주장과 행동은 후세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공통점도 있다. 천문, 지리, 의약, 복서, 병법 등 다양한 학문에 널리 해박하였던 조식처럼, 이지함 또한 “천문, 지리, 의약, 관형찰색, 신방비결에 이르기까지 두루 능통하였다.”는 평가를 받은 것을 볼 때 두 사람은 그 실학적인 학풍에서도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유학(儒學)의 선비는 ‘수기치인(修己治人)’하는 것을 일생의 목표로 하는데, 즉 열심히 학문을 뒤아 세상에 나아가 민중을 구제하고 옮바른 정치를 하는 것이다. 원래 유학을 공부한 자가 ‘출처(出處)’에 분명하지 않으면 선비로서는 치명적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바로 정권의 청통성이 없는 왕과 조정(朝廷)에 학자의 양심과 명예를 팔아먹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을 속이는 끝이 되어, 나아가 민중과 세상을 외면하고 오히려 이에 군림하는 비리와 악의 무리에 동조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치를 잘못하여 백성으로부터 원망을 듣는 군주와 조정일수록 지조 있는 학자를

끌어내어 그들의 정권조직에 참가시키려 한다. 그것은 바로 비판세력을 무마하고 또 학자선비를 우대한다는 미명하에 그 학자의 재야(在野)적 명망을 퇴색시켜 버리고 끝내 올바른 민심과 비판세력마저 잡아우기 위해서다.

명종 말년 당시에 남명은 20년간 수렴정청 하였던 모후(母后)인 대왕대비 문정왕후가 죽자(薨薨), 왕의 간곡한 소명에 의해 경복궁 사정전에서 포의(布衣)로서 왕을 만나보고 정치에 대한 견해를 거침없이 피력한 후 아무런 미련 없이 고향으로 내려가 버렸다. 그 때 도성의 민중들이 당시 나라에서 가장 명망 있던 재야의 선비인 남명을 보려고 몰려 나왔다가, 그가 낙향하며 돌아가는 발걸음이 한강 나루터로 직행하지 않고 마포의 토정(土亭 : 토굴) ‘연례실기술’에는 흙으로 축대를 쌓은 정자)에 있던 이지함을 찾아가 보게 되자 이로부터 ‘토정’과 ‘이지함’은 명망이 더 한층 높아졌다.

그리고 출처사상과 관련하여 “주역周易” ‘산풍고山風蠶’(卦爻) ‘상구上九’ 헌사(爻辭)에 ‘왕과 제후를 섭기지 않으면서도 그 하는 일이 고상하다(不事王侯 高尚其事)’는 말이 있다. 유교정치에 있어서는 실제로 중앙조정의 절대왕권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군주와 그 아래 벼슬하는 조정의 백관은 인사·행정·재정·병권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벼슬하지 않는 사립의 선비는 청의(淸議 ; 상소, 여론형성)와 탄핵권을 가지고 국정을 지도하고 감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백관의 우두머리인 군주와 사립의 영수(領袖)는 동등한 위계로 보았던 것이다.

한 나라에서 선비의 중요성은, 비록 민중이 나라의 근본이기는 하나, 민중의 중우성(衆愚性)을 간파한 중국의 명말청조(明末清初)에 이민족(여진족)에게 나라를 잃은 왕부지(王夫之, 1619~1692)는 “오늘날 같이 도의 기강도 모두 땅에 떨어지고 사시사혹을 미워대로 취하고, 권력에 편승하는 천박한 행위가 노골적인 세상에서는 도적도 정권을 잡을 수 있고, 부인(측천부후)도 정권을 잡을 수 있고, 오랑캐도 정권을 잡을 수 있다. 아침에 먹을 것을 주면 아침에 그 위정자를 높이 평가하고 저녁에 빛을 빼앗으면 저녁에 그 정권을 저주하는 것이 백성(민중)의 심리이다. 은혜를 배풀어도 깊이 새기지 않고 원성을 들어도 오래가지 않는다. 무엇인가 크게 새로운 것이 있으면 과거 일을 깨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것이 또한 민중들의 심정이다.” (“독동감론讀鑑論” 권21)라고 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 안동권씨 ‘종보 보내기 운동’ 전개

안동권씨 종보는 안동권문의 정신문화를 함양하는 역사적인 자료로 과거, 현재, 미래를 등대와 같이 비칠 것입니다. 대종회에서는 이 소중한 종보를 100만 족친 여러분께서 구독할 수 있도록 꾸준히 방안을 마련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종보 구독자 수는 소수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종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종보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오니 종보 보내기 운동 기금과 받는 사람 주소를 대종회로 보내주시면 받은 즉시 전국 방방곡곡 안동권문의 문중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만 송금할 경우 대종회에서 대상자 선정)

이 운동은 故 권태강 대종회 고문(전 검교공파회장)께서 별세하시기 직전에 제안하시고 종보 보내기 운동 기금으로 100만원을 기탁하셨습니다. 대종회에서는 故 권태강 고문의 유지를 반들어 종보 보내기 운동을 추진하오니 100만 족친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3부까지는 부수당 30,000원. 5부부터는 부수당 20,000원(예: 10부 20만원, 50부 100만원)

▶ 입금 계좌번호 : 예금주: 안동권씨 대종회

농협 317-0009-7471-41, 국민은행 033237-04-006941

▶ 연락처 : 안동권씨 대종회 사무처 02-2695-2483

안동권씨 대종회